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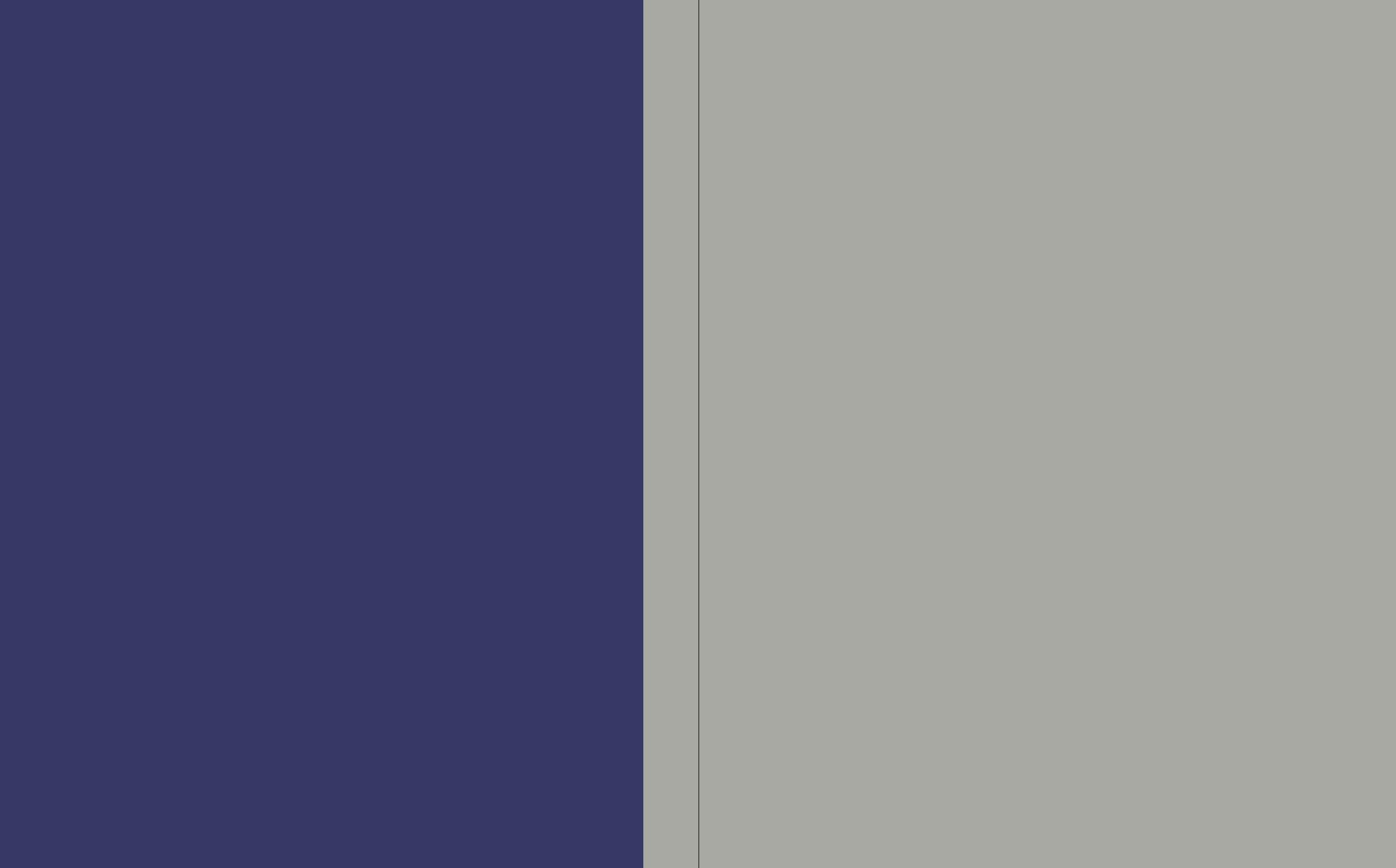


+

BASIC

COMMUNITY CHURCH

뭇 별



†  
BASIC  
COMMUNITY CHURCH

뭇 별

## [인사말\_조정민 목사]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5

이 말씀 위에 베이직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 즉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는 데 있습니다. 본질의 퇴색은 교회의 능력을 약화시켰고, 이는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급진적이어서 가장 강력한 종교성을 지닌 유대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어떤 사상과 이념보다 폭발적이어서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 내에 이단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다윈주의 사상과 가치관 앞에 기독교인들이 먼저 무릎을 꿇는 사태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디지털 사회 변혁의 거대한 흐름 속에 복음의 메시지는 기독교인들의 귀에만 들리는 속삭임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 28:19-20는 명령은 선택이 아님에도 교회는 건물과 제도, 교단과 교파에 갇혀 이 사명을 잊은 채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혀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복음의 생명력을 회복해서 이웃을 향해 두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베이직교회는 그동안 못별예배를 통해 주님의 시선과 발걸음을 좇고자 했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지체되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흠여지는 교회되려고 애썼습니다. 큰 교회가 되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모델 대신 교회가 된 통독반 지체가 어디건 흠여져서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교회공동체가 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그 걸음의 지경을 더욱 넓혀가고자 합니다. 이 걸음은 전혀 낯선 걸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걸었던 길이고 이 천 년 교회사를 통해 참교회가 되고자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다해 걸었던 길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한 마리를 위해 수고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뒤따를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웃에게 메시아를 전한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재산의 반을 이웃에게 기부한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갈 길을 완주한 것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못별이란 결국 사랑받은 자의 손길이요 사랑하는 자의 발길입니다. 그 손과 발의 수고는 주일에도

선을 행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교회란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임을 우리의 이웃이 진실로 알게 될 것입니다.



[목차]

03 인사말

---

12 뭇별이란?

15 뭇별예배의 목적

16 뭇별예배의 형태

18 뭇별예배 가이드

24 뭇별예배 FAQ

---

30 크리스천 베이직 1 | 왜 예수인가

40 크리스천 베이직 2 | 왜 성경인가

45 크리스천 베이직 3 | 왜 교회인가

56 성경통독 안내

일상통독 | 말씀묵상 | 말씀기도 | 통독모임 | 통독반의 실제

66 통독을 위한 팁

68 어린이예배

71 청소년통독반 안내/새가족 등록/통독반 신청

72 2020년 성경통독표

74 2020년 교회일정

---

78 성찬 안내

82 Come to Table

84 성찬 가이드

86 성찬 FAQ

88 세례 신청

I  
뜻별  
|

+

BASIC

COMMUNITY CHURCH

## [뭇별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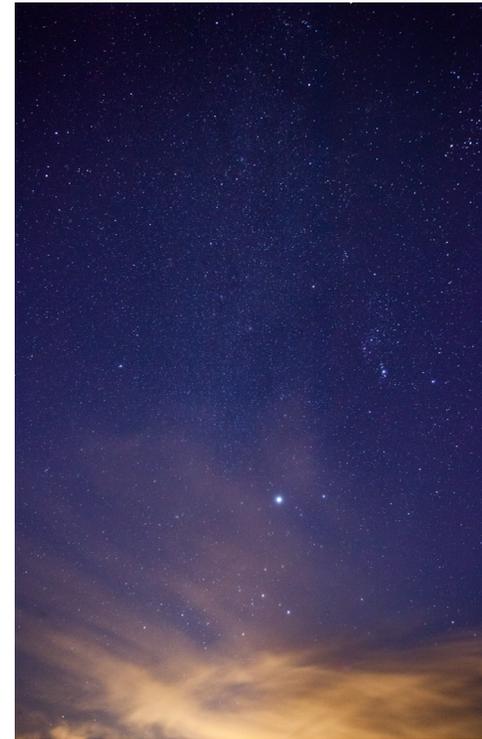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5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뭇별은 하나하나가 어둠을 밝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뭇별은 프랙탈 구조<sup>1</sup>입니다. 한 별이 교회이고 뭇별도 교회입니다. 지역교회인 베이직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고, 통독반으로 모인 소그룹도 교회이고, 통독반이 함께 모인 공동체도 교회이고, 공동체가 다수 모여도 교회이고, 모든 지역 교회들이 다 모여도 교회이고, 온 열방의 모든 교회를 통틀어도 오직 주님의 한 교회입니다.

그리하여 뭇별예배는 ‘성도가 교회’라는 고백과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라는 진리를 실천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보다 넓은 시야가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모두는 머리 되신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하나입니다. 엡 1:23 우리는 올해 가정 또는 성경통독반이나 공동체로 더 자주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곳에

<sup>1</sup> Fractal, 프랑스 수학자 만델브로트(B.B. Mandelbrot)에 의해 사용된 단어로, 작은 구조와 전체 구조가 비슷한 형태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서나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됨을 확인하려 합니다. 뭇별예배를 드리기 위해 흠어지는 주일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예배합니다.





### [뭇별예배의 목적]

뭇별예배는 지금까지 특정한 교회 건물에서 드러 왔던 일반적인 주일 예배의 축소형, 간소형 예배가 아닙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일에 형식과 절차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안식과 예배를 잃어버린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삶의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못별예배의 형태]

### | 가정 예배

교회공동체의 기본 단위가 되는 한 가족이나 또는 몇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흩어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고, 멀리 떨어진 믿음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에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가족의 희로애락을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 | 통독반 예배

통독반원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예배 장소는 가정일 수도 있고, 별도의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통독반원 모두가 동의하는 장소에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 예배 순서를 자유롭게 맡아 예배에 참여합니다. 특별히 통독반원의 개인적인 사정과 형편에 따라 다양한 장소에서 가족들의 위로와 회복을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 | 소그룹 연합 예배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통독반 성도들을 비롯해서 독자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몇몇 통독반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성경통독반이 야외나 수련원 같은 곳을 방문해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다른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거나 교회 지체들을 방문해서 예배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본질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거나 혹 교회 이름을 드러내려는 사역이 되지 않도록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 | 성찬예배

공동체의 모든 통독반이 한 자리에 모여 성찬을 나눕니다. 또한 더 작은 단위의 모임에서도 성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성찬예배는 공동체나 통독반의 모든 구성원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의미를 되새기는 예배입니다.

## [못별예배 가이드]

### | 예배의 부름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초청하는데서 시작됩니다. 이 부르심 없이는 사람의 예배행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사람의 주도가 아닌 하나님의 주도와 인간의 순응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곳으로, 예배하도록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예배의 부름, 예배로의 초청입니다.

인도자는 먼저 성구를 정확한 발음으로 낭독합니다.

성구 낭독이 끝나면 누구에게 예배드리는지를 선포합니다.

- 우리를 이처럼 예배하라고 부르신 하나님께 다 같이 예배드립니다.
-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 | 찬송(찬양)

섬김이(예배인도자)는 함께 부를 찬양 2~3곡을 선곡합니다. 찬양을 선택할 때에는 사람들의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한 찬양보다는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찬양을 선택합니다. 가능하면 찬송가 한 곡 이상을 포함시키기를 권하며 모두가 잘 아는 찬양을 선곡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시편 낭독

시편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말씀인 동시에 인간의 이성, 감정,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서의 말씀을 읽기 전, 시편을 낭독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구약 시대와 단절되지 않고 구약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시편 교독문을 참고하거나 시편 한 편을 정해서 교독, 합독, 낭독 등의 방법으로 읽습니다.

### |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회중 기도는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기도드리며, 세상의 일들이나 사람의 일을 기도하기보다는 예배를 받아달라는 간구나 성경 말씀을 직접 인용하여 기도하는 내용에 중점을 둡니다.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은, 기도를 통해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거나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기도를 맡은 이는 한 주 동안 겸손히 말씀을 읽으며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을 준비합니다. 기도는 가능한 3분을 넘지 않도록 준비할 것을 권합니다.

## | 성경 읽기

성경읽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응답해 주시는 순서로서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믿음의 사건입니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 당시 회당 예배에서도 중요한 순서였습니다. 가능하면 일어나서 모두가 함께 한 목소리로 그날의 본문을 읽습니다. 본문은 매주 약속된 본문을 읽습니다.

## |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미리 준비된 공동 설교문을 예배인도자가 읽습니다.
- 공동 설교문을 참고하여 문단을 나누어 통독반원들이 함께 읽습니다.
- 해당 본문의 내용을 묵상한 후, 돌아가면서 나눕니다.

설교를 맡은 이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시간이란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 | 중보기도

주신 말씀을 따라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방법은 침묵기도, 합심기도, 설교자의 기도 등 다양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통독반 구성원을 위한 기도, 통독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미리 두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정하여 가능하면 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합심 기도가 끝날 때 예배 인도자는 마무리 기도를 드립니다.

## | 찬양

본문과 관련된 찬양을 부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 결심과 결단, 헌신과 충성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찬양을 함께 부르며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 | 공동 축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거나 민수기 6:24-26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세상으로 파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뭇별 예배 순서의 예

- 예배의 부름
- 찬양(2~3곡)
- 시편낭독
- 기도
- 성경읽기/ 설교
- 말씀나눔
- 중보기도
- 찬양(1곡)
- 주기도 또는 공동축도



## [못별 FAQ]

### | 예배 인도는 누가 해야 합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 4:16 베드로는 성도 모두가 제사장이라 선언합니다. 벰전 2:9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며 우리의 대제사장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든 예배를 인도할 수 있으며 설교할 수 있습니다. 목사만이 설교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목사를 대제사장으로 회귀시키며 예수님께서 찢으신 지성소의 휘장을 다시 쳐야 한다는 생각과 같습니다.

### | 목사의 설교만큼 은혜가 있을까요?

설교는 목사에 의해 해석된 메시지입니다. 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자 강의가 다른 어떤 선생의 강의보다 정확하고 힘이 있듯이 목사의 설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삶을 변화 시키는 직접적인

원동력입니다. 목사의 설교에 매이지 않으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할 때, 설교만을 통해 공급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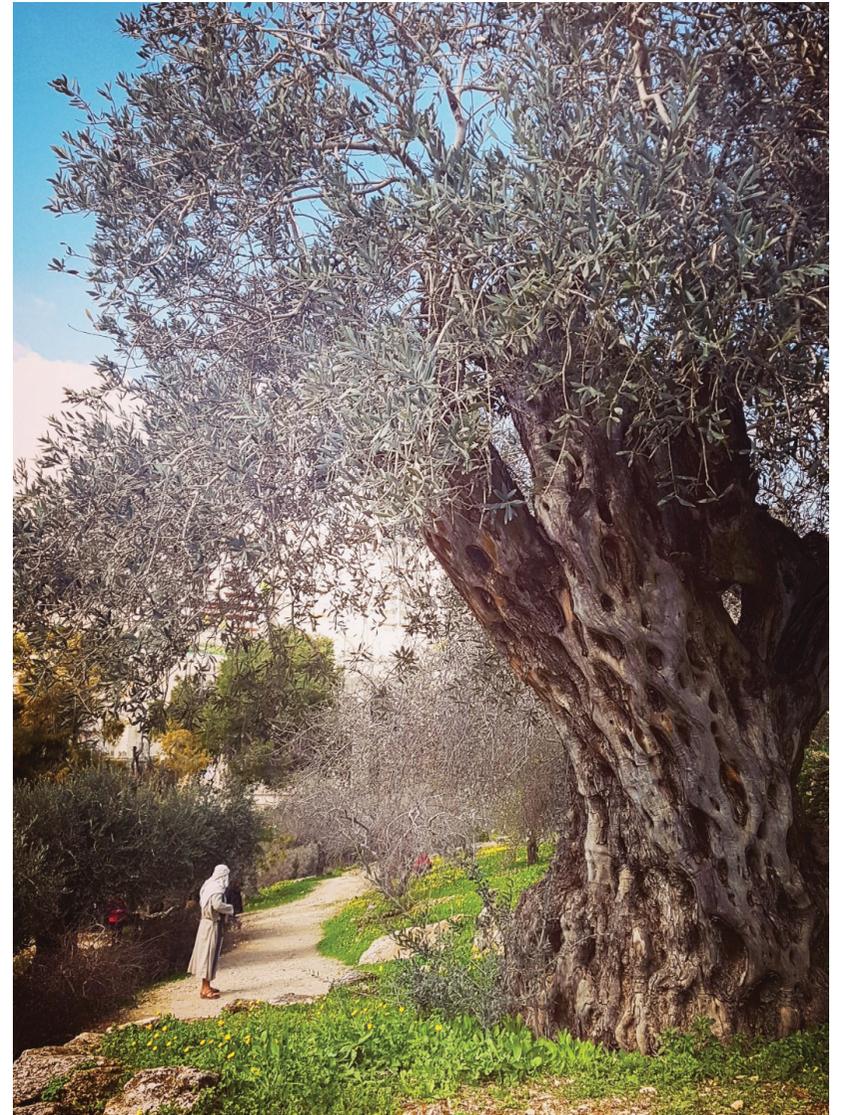
### | 섬김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섬김이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가르치려는 태도입니다. 섬김이가 성령님보다 앞장서서 모임을 주도하면 구성원 모두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섬김이의 역할에 대해 바울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 딤후 4:16고 권면합니다. 섬김이는 스스로를 점검하며 말씀과 기도로 기록해지는 삶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통독반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본으로 성찬과 세족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 형제자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내 생명을 나누는 것이 섬김의 본질입니다.

### | 예배 준비에 부담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부담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을 맡은 자들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섬김이 혼자 준비하기가 어렵다면 통독반원들과 역할을 나눈 후, 서로의 역할을 바꾸어 가며 준비하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혹 모든 통독반원이 부담스러워 한다면 예배를 포기하기보다는 담당 교역자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소그룹 예배에 참여하거나 교역자가 참여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장 잘못된 인식 중의 한 가지는 예배를 통해 내가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사랑과 섬김의 수고를 다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이기에 앞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 예배는 출발부터 생각과 태도가 빗나간 것입니다.



II  
크리스천 베이직  
|

## [크리스천 베이직1 | 왜 예수인가]

마르틴 루터가 비텐부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을 개시함으로서 종교 개혁의 깃발이 올랐습니다. 종교 개혁은 ad fontes, 근원(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개혁 운동입니다.

###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원인은 교회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종교 조직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의 본질과 핵심이 흐려지고 로마가 톨릭의 교리가 강조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동격이 되어버린 그들의 교리는 점차 본질을 흐리며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중세 천년을 암흑기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sup>마5:13-14</sup>이라는 말씀이 무색하게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소명을 외면한 채 교회가 권력과 재물에 취해 있을 때 세상은 더 깊은 어둠에 갇혔습니다.

### “누구를 따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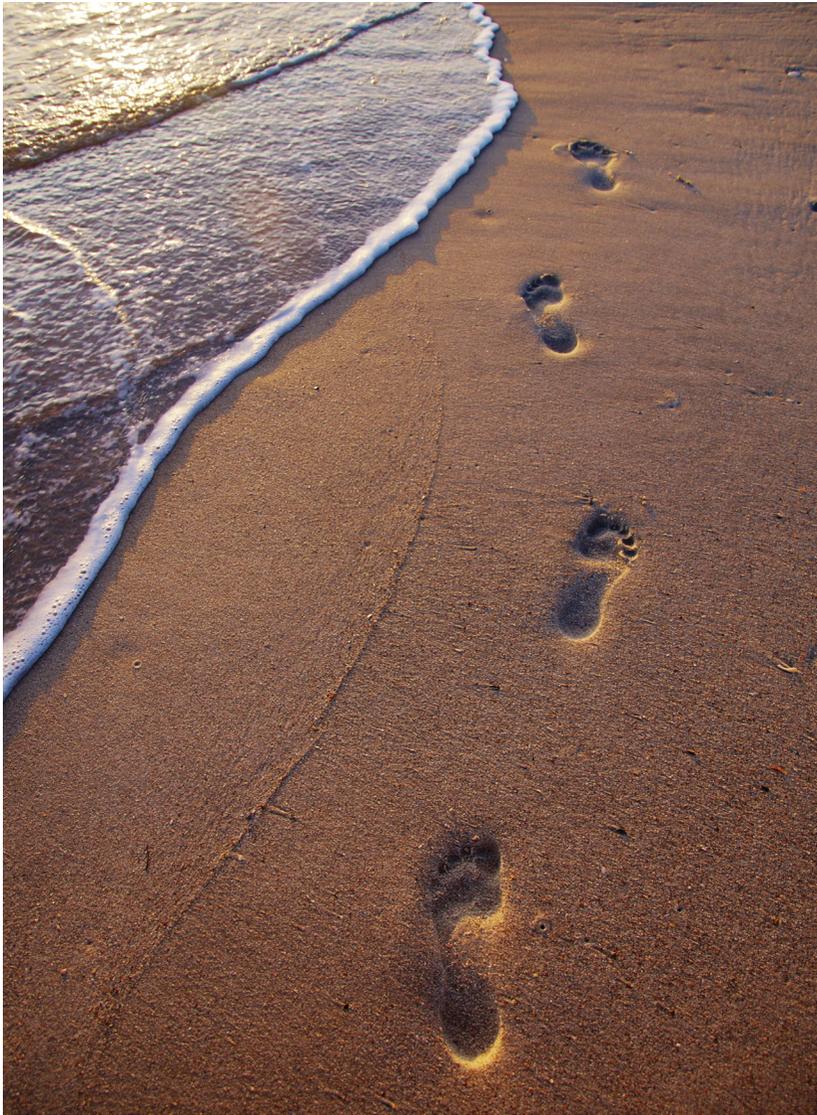
만약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거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별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목사와 더 가까워지고자 한다면 앞뒤가 뒤바뀐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부탁에는 순종하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불순종하거나 심

지어 예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크리스천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합니다.

비올라보다 작은 악기를 바이올린이라고 부르듯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작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크리스천 스스로가 자신을 소개한 말이 아닙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고 ‘저들은 크리스천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곧 작은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생겨난 말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천이란 그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에만 크리스천일 수 있습니다.

### “예수님만이 답이다”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가 팽배한 시대 속에서 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까? 왜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개인의 분명한 자기 선언이나 뚜렷한 고백이 없다면, 곧 왜 예수인가에 대한 명백한 답을 할 수가 없다면 크리스천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왜 예수인가에 대해 분명히 답할 수 없다면 다가오고 있는 종교통합운동이나 앞으로 일어날 환난과 박해의 시대를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기준이어야 이 혼탁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스를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고 말 것입니다.



##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누구라고 하는 자기 선포 Self Proclamation를 일곱 가지로 기록합니다. 영어로는 I am으로 번역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일곱 번의 선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니라’입니다.

헬라어로는  $\epsilon\gamma\omega \epsilon\iota\mu\iota$ 에고 에이미라고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는  $\text{אֲנִי אֶשֶׁר אֶהְיֶה}$ 에호에 아쉐르 예호에라고 하는데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소명을 받던 장면에서 나옵니다. 모세는 불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가서 누구를 만났다고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이름이  $\text{אֲנִי אֶשֶׁר אֶהְיֶה}$ 에호에 아쉐르 예호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입니다. 출 3:14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인 때문에 존재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학적으로는 ‘존재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으로 제한되지 않는 분입니다. 인간에게 인격적인 이름으로 가르쳐주신 이름이 I am who I am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유대 땅에 오셔서 이 이름으로 스스로를 계시하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자기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의도적으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쓰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나더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반복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밝히신 이 정체성,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크리스천 신앙의 불변의 근거입니다.

### “왜 인간으로 오셨나?”

인간은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죄를 속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와 동거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어떻게 대속할까요? 우리의 죄를 전가<sup>[Transfer]</sup>하려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둘 다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합니까? 또한 인간이 아니고서 어떻게 인간의 죄를 뒤집어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이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붓다? 마호메트? 이 땅의 어떤 존재가 무덤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모든 인간은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신성을 입증하셨습니다. 빈 무덤이야말로 신성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성과 경험의 논리에 갇힌 세상을 향해 그걸 믿으려면 믿겠습니까?

###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제 3위의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떠나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땅에 있으면 한시적으로 시간과 공간에 갇힌 존재로 자각되겠지만 떠나서 예수님을 증명할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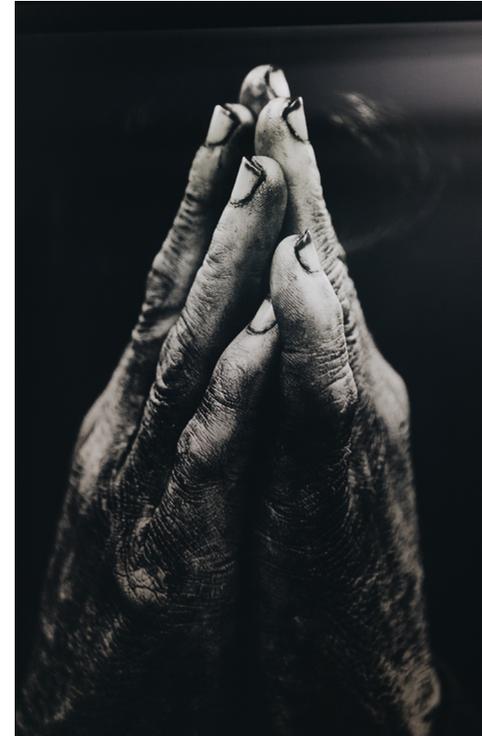
### “왜 예수인가?”

복음은 Religion이 아니라 Meta-Religion입니다. 물리적<sup>Physics</sup>인 것으로 해결이 안되니 Meta-Physics 철학의 세계가 열린 것이고, 철학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종교가 생긴 겁니다. 그러나 종교가 궁극적인 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종교 이상입니다. 종교를 넘어선 분이십니다. 그분을 종교적 차원, 도덕적 윤리적 차원으로 격하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종교 중 하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약속한 성령이 오셔서 내가 그분과 함께 동

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질 수 없는데도 달라진 체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될 뿐입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아도 달라진 체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위선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중심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 일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면 갈등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정녀로 오셨거나 물위를 걸어가셨거나 그분이 무슨 기적을 베푸셨거나 하나도 갈등이 되지 않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의심 하면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입니까? 예수 이름 외에 진리에 이르는 어떤 이름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하지 않고서는 죄 때문에 겪는 존재론적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 “묶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라”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만 어느 순간부터 직분, 현금, 주일성수와 같은 것에 점점 속박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누워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이라 말하는 것으로 보아 제사를 주관하러 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강도를 만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갑니다. 이를 오늘날 상황으로 바꾸자면 이와 같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하러 가는 담임목사님,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러 가는 장로님, 권사님, 또는 교회 봉사를 하러 가는 안수집사님들이 교회를 가는 도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드러야 할 예배가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종교인들을 꾸짖고 비난하셨던 큰 이유는 율법을 주신 본질을 잊어버리고 율법의 형식만을 지키는 위선적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

키지 않으면 믿음이 좋지 않은 것이고 율법을 지켜야만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기준을 다 뒤집어엎으셨습니다.

### “무엇에 묶여 있는가”

많은 성도들이 가나안성도라고 불리며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더니 예수교를 따라가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교를 예수라고 착각하고 따라갑니다. 시작점에서 0.1°만 틀어져도 몇 킬로미터 거리에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붙들고 신앙 생활하면 돌이킬 수 없는 모습으로 변질된 신앙이 됩니다. 베이직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묻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가대는 왜 없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예전 liturgy,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속에 갇혀서 ‘이게 교회야’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 “왜 성경인가?”

이러한 오해로부터 벗어나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그 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당신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 공간 사이를 가르는 큰 커튼이 쳐져 있었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1년에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커튼이 찢어집니다. 언제 찢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가 다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열어주셨지만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대제사장처럼 여기는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마치 목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어떤 존재입니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만인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목사들에 의해 해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 “성경과 설교, 어느 것에 더 권위를 두는가?”

영양제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음식들을 골고루 먹어서 영양소를 흡수시켜야 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말씀은 듣지 않고 목사들에 의해 해석된 영양제(설교)를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양제만을 먹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설교만을 듣는 사람, 누가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무슨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은 결국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예수님을 수단화시켜버리는 삶으로 변질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 “성경은 믿을 만한 책입니까?”

성경은 역사적 사실입니까 소설입니까. 리비의 로마의 역사 같은 책을 읽고 고대 그리스 로마의 역사가 이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리비의 로마의 역사는 BC 59 ~ AD 17년 이 사이에 쓰였다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사본은 10세기경 약 1000년의 간격을 두고 발견되며, 발견된 사본의 수는 20권입니다. 1000년의 시간 간격에 발견된 20권의 책의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신약성경을 예로 들면, 신약성경은 AD 35~40년부터 100년경 사이에 다 기록됩니다. 최초의 사본이 AD 130년에 발견되고 전체 사본은 AD 350년에 완결이 됩니다. 간격은 300년입니다. 발견된 사본의 숫자는 그리스어로 5천개 이상, 라틴어는 만개, 다른 언어 사본은 9300개 이상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역사를 믿는 것과 신약 성경 중 어느 것이 더 진정성이 있습니까? 어느 것이 역사적 사실에 더 가까울까요? 이런 사실로 보아 예수님은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왜 성경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사람을 향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책이기 때문입니다.



### [크리스천 베이직3 | 왜 교회인가]

####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며 교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 16:13-18

#### “반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 하십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으로 이해해서 베드로의 수위권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를 계승한 교황이 교회에 대한 특별한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맥락을 통해 해석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당신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

이고, 이 복음이 나와 관계되는 사건, 이것이 반석입니다. 복음의 사건이 없는 어떤 종교적 행위도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헛된 경건입니다.

## “성막과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예배(제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구별된 장소인 성전이 훼파됐기 때문입니다. AD 70년 로마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얼마나 커다란 성전을 정복하여 파괴했는지를 과시하기 위해 서쪽 벽을 남겨두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서쪽 벽은 24시간 개방이 돼있고,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날마다 통곡하며 동쪽 문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 성전을 회복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드러야 하는 제사를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신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함께 거니시는 창세기 1, 2장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하는 성소를 창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의 설계도가 매우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다시 그 설계대로 성막을 짓는 것이 증언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매우 신중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막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매일 드러내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에덴동산 이후 처음으로 사람들은 공식적인 성소를 가지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성막은 다윗을 지나 솔로몬 시대에 이르렀을 때 하나

님께서 주신 설계에 따라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남유다의 멸망으로 훼파되었고, 스룹바벨, 느헤미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제2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 성전이 헤롯대왕에 의해 증축되었고, 예수님 당시는 그러므로 제2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제2 성전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훼파된 성전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그분의 백성들과 만나 거하시는 거룩한 곳, 곧 성전의 본질에 닿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 “바울의 교회 이해”

바울은 성전에 대해 확실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이해는 구약성경 전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엡 2:19-22 나아가 우리의 몸이 곧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고전 6:19 그리스도는 머리로, 교회는 그의 몸이며,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부릅니다.고전 12:27; 엡 1:23;4:15-16; 골 1:20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바 되었다고 말하지요.행 20:28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이해하게 된 것에는 그의 회심 사건에 닿아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행 9. 당시 그는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살기가 등등해서 달려가던 도중에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께 대답을 듣습니다. 그가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까요? 그들이 전하는 소식을 믿지 못했고, 아니 거짓과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더구나 나무에 달려 죽은 자, 곧 신명기의 저주를 받은 자 신 21:23 가 그리스도일 수 없다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살아있되 하늘에 존귀한 존재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결과 그가 이제까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던 그 모든 사건이 진실임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제자들이 증언한 복음의 사건이 현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그의 회심은 부활의 현실과 조우하여 깨닫게 된 결과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꺾박한 적이 없었고, 다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들을 꺾박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꺾박한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로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요한의 교회 이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반문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요 2:19-22 이 해석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가 밧모섬에서 본 비전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나는 선한 목자라 ...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 10:14-15 라고 증언합니다. 이 증언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막 10:45 라는 다른 복음서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요한의 비전에서 다음과 같이 확증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 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계 5:9-10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성전에 대해서 요한은 비전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듣고 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계 21:3, 22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며,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현실이 성전(예수님이 세우시는 성전)이라고 요한이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 “주님의 교회가 되는 영광”

사도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생명으로 값주어 사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는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당신의 피로 값 주어 사시는 일대일의 복음사건을 이루시고, 그 부르신 이들이 함께 머리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몸된 지체로 연결되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참된 교회 공동체들은 결국 머리되신 주님께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베이직 교회는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서울 논현동에서 모이는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도 교회이고, 흩어져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못별로 흩어지는 교회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몸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엡 4:11-16

몸의 각 지체가 다르듯,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의 뜻에 따라 은사(그리스도의 선물)를 주셨고, 우리는 그 은사로 살고 또 섬깁니다. 그 삶과 섬김 가운데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영광, 우리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변화, 이것이 교회의 부흥이고, 교회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려야 할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III  
성경통독  
|



## [성경통독 안내 | 1. 일상통독]

성경통독은  
매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꾸준히 읽는 것이  
좋습니다.

### 1. 하루에 20분 정도 통독할 분량을 정해 읽습니다.

- 성경장수로 3장 내지 4장 정도입니다. 첨부된 베이직교회 통독표를 참조하십시오.

### 2. 성경을 가급적 소리 내어 읽습니다.

- 개인성경공부가 아닙니다. 다소 궁금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멈추지 말고 끝까지 읽습니다. 소리 내서 읽는 것은 눈과 귀로 함께 읽는 유익이 있습니다.

### 3. 완독이 목적이 아니라, 일상통독이 목적입니다.

- 간혹 여러 이유로 며칠 혹은 몇 주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난 것에 집착해서 부담을 가지면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는 그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 평생 성경을 읽을 것이기에, 언젠가는 놓친 부분을 다시 읽게 됩니다.
- 휴가 기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보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 성경읽기는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 4. 내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나를 읽고 있습니다.

- 성경은 세상 전체의 메시지에 반합니다.
- 이해되지 않거나 의문을 불러일으키거나 덮어버리고 싶더라도 매일 읽으면 달라집니다.
-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알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통독 안내 | II.말씀묵상]

성경을 통독한 후,  
잠시 읽은 분량을 눈으로 읽고,  
마음에 와 닿는 부분에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1. 억지로 해석하려 하지 말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내용에 잠시 머물러 생각하십시오.**

- 이때, 모르는 단어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내 삶에 급하게 적용하려 하지 말고,  
그 구절과 내용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 묵상의 실마리를 잡은 것입니다.

**3.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한 구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 이 묵상한 구절은 내 말로 바꾸어 표현해보거나,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경통독 안내 | III.말씀기도]

말씀읽기는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집니다.

**1. 성경을 읽은 후, 그 성경을 내 언어로 삼아 기도합니다.**

- 방금 읽은 구절, 머문 구절을 인용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2. 통독한 내용을 생각하며, 천천히 기도합니다.**

- 상투적인 표현 보다는 평소 사람들과 대화하는 어투나 화법으로 천천히 기도하십시오.

[성경통독 안내 | IV.통독모임]

우리의 의지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읽기 위해  
동반자들이 필요합니다.

1. 동반자들과 일주일에 한번 1시간 이내로 시간을 정해  
함께 모여 읽습니다.

- 베이직교회는 이것을 “통독반”이라고 부릅니다.
- 성경공부가 아닙니다. 가르치거나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읽는 것이 우선입니다.
- 사적인 대화나, 교제 등은 가능한 절제해야 합니다(심지어 기도제목 나눔도 절제합니다).
- 모임 가운데 말씀이 차오르면, 교제, 기도, 나눔은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2. 모임 장소와 시간은 가까운 곳,  
한 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편이 좋습니다.

- 부담 없이 모일 수 있는 가까운 장소에서 모입니다.
- 가급적 방해 받지 않는 조용한 곳이 좋지만, 없다면 다수가 사용하는 장소도 좋습니다.
- 통독모임 시간은 한 시간 반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통독을 위한 팁]

- 1. 매일 그날,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경통독은 매일 그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 2. 항상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기도 없이 통독을 하는 것은 주인이 없는 식탁에 앉는 것입니다.
- 3. 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글자를 보던 눈을 감으면,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 4.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초에 기도의 불을 붙이면 영혼의 방이 밝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 5.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낭독의 힘은 강력합니다.

- 6. 함께 말씀을 읽는 벗을 구하십시오.**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좋은 방법은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는 공동체입니다.
- 7. 성경읽기표를 활용하십시오.**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8. 거룩한 상상력을 맛보십시오.**  
말씀을 읽으며 그 상황 속에 머문다면 보다 깊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 9. 성경사전과 지도책을 참고하십시오.**  
보다 입체적인 성경 목상이 가능합니다.
- 10. 내러티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성경의 숲에서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은 전체 맥락을 보는 것입니다.
- 11.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잡으십시오.**  
말씀이 나를 읽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 12. 말씀 읽기는 일상의 삶입니다.**  
성경통독은 훈련이나 학습,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 [어린이 예배]

베이직교회 어린이 예배의 본질은 ‘패밀리 워십’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예배는 ‘패밀리 통독반’이 잘 세워지도록 돕는 디딤돌이자 동역자의 역할을 제공하며, 이에 가정의 결단과 실천 또한 필요합니다.

### \* 주일 예배 안내

#### [대상연령]

- 유치부 : 5-7세 / 초등부 : 1-4학년
- 4세 이하 유아는 자모실에서 예배 드리며, 5학년 이상 어린이는 부모님과 예배 드리고 청소년 통독반 모임을 갖습니다.

#### [예배시간]

- **2부**(11:30): 유치(3층), 초등(2층)
- **3부**(14:30): 연합(3층)
- 못별 주일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패밀리 통독반’에서 예배 드립니다.

### \* 어린이 예배 자료 안내

패밀리 통독반을 위한 어린이 예배 자료를 ‘네이버 밴드’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용방법]

- 모바일(어플) & PC : ‘네이버 밴드’(https://band.us/) > ‘BASIC 패밀리 통독반’(band.us/@basicfamily)

## [예시 자료1] 패밀리 통독반 예배 순서

예배 인트로	- 인도자
2월 암송말씀	- 요 11:25-26 - 매월 밴드에 공유되는 ‘월별 암송말씀 동영상’ 활용
어린이 찬양	- 찬양 2~3곡 - 밴드에 공유되는 ‘추천 찬양 목록’ 참고
대표 기도	- 가정별로 순서를 정해 대표 기도를 준비합니다. - 부모와 자녀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합니다. - 어린 자녀들도 부모님과 함께 준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이 설교	- 가정별로 순서를 정해 설교를 준비합니다. - 매주 목요일, 밴드에 업로드 된 어린이 설교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준비합니다.
주기도문송	- 밴드 동영상 활용 - 주기도문을 노래와 율동으로 만든 동영상입니다.
어린이 활동	- 어린이 활동시간은 가정별로 순번제로 섬깁니다. - 자녀들은 이 시간부터 공간을 이동하여 활동을 진행합니다.
찬양	- 자녀들이 활동 공간으로 분리된 후, 부모들은 찬양으로 예배 순서를 부드럽게 이어갑니다. - ‘통독섬김이’ 단톡방에 공유되는 ‘추천 찬양 목록’을 참고하여 찬양 1~2곡을 이어갑니다.
성경 봉독	- 예배 본문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 선포	- ‘통독섬김이’ 단톡방에 공유되는 설교문과 영상을 참고하여 각 통독반 상황에 맞게 활용하여 준비합니다.
축도	- 민 6:24-26절을 읽으며 서로 축복하고 감사를 나누며 예배를 마칩니다.

## [어린이 예배]

### [예시 자료2] 어린이를 위한 5분 메시지 & 나눔

- 자료출처: 두란노, 예수님이 좋아요

**5분MESSAGE** -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가까워왔다는 사실을 알려 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진부 제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친구들, 그 방법이 뭐예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보고 그들과 함께하시라는 약속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이 나누시는 사랑이 제자들 사이에도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 배드코의 교만 때문에 허락하게 되신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위해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사소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때 그 사랑 때문에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고통을 겪으며, 내 필요없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랑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를 사랑해 주는 믿은 친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길로 사랑을 나누도록 예수님을 모시는 배드코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들은 배드코는 그들을 잠시 만나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곳으로 가신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주여, 아버지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주를 위한다면 배드코도 따라갈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확실히 배드코와 그 가족들을 믿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배드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할 게 없어 내가 너를 세 번 말할 것이다." 진짜 배드코는 예수님을 모신다고 했어요? 정말 배드코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사랑했는지 물어 보게 해 주신다. 예수님을 모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겠다고 한 소원이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신 그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필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필요한 친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랑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우리는 그분의 진부 제자로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드코와 믿은 제자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믿은 제자들, 그리고 그분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들 통해 믿은 제자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거예요.

**MESSAGE**

요인복을 15장 31~38절.

31. 우리가 나간 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으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되겠다."
32.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하나님께도 영광을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 때가 올 것이다.
33. 제자들이, 이제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찾을 것이다. 내가 언제 갈지 사람에게 알린 대로 너희에게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34.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가 내 제자들을 알게 될 것이다.
36. 시몬 배드코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가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니다. "내가 가는 곳으로 내가 지금 온 줄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
37. 배드코가 물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지금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주를 위한다면 배드코도 따라갈 겁니다."
38.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너를 위해 배드코이든 배드코가 아니든 세 번 말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를 말한다. 이제 할 게 없어 내가 너를 세 번 부른 할 것이다."

**💡 읽을 줄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가까워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진부 제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들은 배드코는 예수님을 위해 배드코도 배드코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배드코가 예수님을 모신다고 할지라도 배드코가 예수님을 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청소년 통독반]

- 주일 2부 예배 시간을 전후하여 정해진 장소에서 모여 통독 모임을 갖습니다.
- 청소년 통독반을 인도하실 교사와 함께 부모님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일 2부 예배 시간에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 주중에는 부모님과 시간을 정하여 가정에서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습니다.
-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흘러가는 신앙 성숙의 장이 되길 소망하며 참여합니다.

## [베이직교회 새가족 등록]

- 통독반을 통해 베이직 공동체를 접하신 분들은 통독반 섬김이에게 새가족 등록을 요청합니다.
- 통독반 섬김이는 이를 공동체 담당 목회자에게 알립니다.
- 월별(혹은 분기별)로 각 공동체에서 가족이 되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새가족반을 합니다.
- 새가족반을 이수하신 분들은 새가족 등록 카드를 작성하고, 사진을 제출하면 모든 등록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 [통독반 신청]

-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월별(혹은 분기별)로 진행되는 새가족반 과정을 먼저 신청합니다.
- 새가족반 과정 수료 후, 통독반 신청서를 작성하면 각 통독반에 배정됩니다.
- 지인을 통해 통독반에 참여하신 분들은 위의 새가족 등록 절차를 따라주시요.

[2020 성경통독표]

	JAN	FEB	MAR	APR	MAY	JUN
1	창 1-3	출 31-33	개별통독	삼상 19-20	대상 1-3	욥 11-15
2	창 4-7	출 34-36	신 8-11	삼상 21-23	대상 4-6	욥 16-21
3	창 8-10	출 37-40	신 12-15	삼상 24-25	대상 7-10	욥 22-28
4	창 11-13	레 1-3	신 16-19	삼상 26-28	대상 11-14	욥 29-33
5	창 14-16	레 4-6	신 20-22	삼상 29-31	개별통독	욥 34-38
6	창 17-18	레 7-9	신 23-26	삼하 1-3	대상 15-18	개별통독
7	창 19-20	레 10-12	신 27-28	삼하 4-6	대상 19-22	욥 39-42
8	창 21-23	레 13-14	신 29-31	삼하 7-9	대상 23-26	시 1-5
9	창 24-25	레 15-17	신 32-34	삼하 10-12	대상 27-29	시 6-10
10	창 26-27	레 18-20	수 1-3	삼하 13-15	대하 1-4	시 11-15
11	창 28-30	레 21-23	수 4-6	삼하 16-18	대하 5-7	시 16-20
12	창 31-33	레 24-25	수 7-9	삼하 19-21	대하 8-10	시 21-25
13	창 34-36	레 26-27	수 10-12	삼하 22-24	대하 11-13	시 26-30
14	창 37-38	민 1-2	수 13-15	왕상 1-3	대하 14-16	시 31-35
15	창 39-41	민 3-5	수 16-18	개별통독	대하 17-20	시 36-40
16	창 42-44	민 6-7	수 19-21	왕상 4-7	대하 21-24	시 41-45
17	창 45-47	민 8-10	수 22-24	왕상 8-10	대하 25-28	시 46-50
18	창 48-50	민 11-13	삿 1-3	왕상 11-13	대하 29-32	시 51-55
19	출 1-3	민 14-16	삿 4-6	왕상 14-16	대하 33-36	시 56-60
20	출 4-6	민 17-19	삿 7-9	왕상 17-19	스 1-3	시 61-65
21	출 7-10	민 20-22	삿 10-12	왕상 20-22	스 4-7	시 66-70
22	출 11-13	민 23-25	삿 13-15	왕하 1-3	스 8-10	시 71-75
23	출 14-16	민 26-28	삿 16-18	왕하 4-6	느 1-3	시 76-80
24	개별통독	민 29-31	삿 19-21	왕하 7-9	느 4-6	시 81-85
25	개별통독	민 32-33	룻 1-4	왕하 10-12	느 7-8	시 86-89
26	개별통독	민 34-36	삼상 1-3	왕하 13-15	느 9-10	시 90-94
27	개별통독	신 1-2	삼상 4-7	왕하 16-18	느 11-13	시 95-100
28	출 17-19	신 3-4	삼상 8-11	왕하 19-21	에 1-5	시 101-106
29	출 20-23	신 5-7	삼상 12-14	왕하 22-25	에 6-10	시 107-109
30	출 24-27		삼상 15-16	개별통독	욥 1-5	시 110-114
31	출 28-30		삼상 17-18		욥 6-10	

	JUL	AUG	SEP	OCT	NOV	DEC
1	시 115-118	사 38-41	겔 18-20	개별통독	요 1-3	갈 1-3
2	시 119	사 42-44	겔 21-22	개별통독	요 4-6	갈 4-6
3	시 120-125	사 45-48	겔 23-25	개별통독	요 7-9	엡 1-3
4	시 126-130	사 49-52	겔 26-28	숙 11-14	요 10-12	엡 4-6
5	시 131-135	사 53-57	겔 29-32	말 1-4	요 13-15	빌 1-4
6	시 136-140	사 58-62	겔 33-35	마 1-3	요 16-18	골 1-4
7	시 141-145	사 63-66	겔 36-38	마 4-6	요 19-21	살전 1-5
8	시 146-150	렘 1-3	겔 39-40	마 7-9	행 1-3	살후 1-3
9	잠 1-3	렘 4-6	겔 41-42	개별통독	행 4-6	딤후 1-3
10	잠 4-6	렘 7-9	겔 43-45	마 10-12	행 7-9	딤후 4-6
11	잠 7-9	렘 10-13	겔 46-48	마 13-15	행 10-12	딤후 1-3
12	잠 10-14	렘 14-17	단 1-4	마 16-18	행 13-15	딤후/몬
13	잠 15-18	렘 18-20	단 5-8	마 19-21	행 16-18	히 1-3
14	잠 19-21	렘 21-23	단 9-12	마 22-24	행 19-21	히 4-6
15	잠 22-24	개별통독	호 1-5	마 25-26	행 22-25	히 7-9
16	잠 25-27	렘 24-27	호 6-10	마 27-28	행 26-28	히 10-13
17	잠 28-31	렘 28-30	호 11-14	막 1-3	롬 1-3	약 1-2
18	전 1-4	렘 31-33	울 1-3	막 4-5	롬 4-7	약 3-5
19	전 5-8	렘 34-36	암 1-4	막 6-8	롬 8-10	벧전 1-3
20	전 9-12	렘 37-40	암 5-9	막 9-11	롬 11-13	벧전 4-5
21	아 1-4	렘 41-44	욥/온	막 12-13	롬 14-16	벧후 1-3
22	아 5-8	렘 45-48	미 1-3	막 14-16	고전 1-3	요일 1-5
23	사 1-4	렘 49-50	미 4-7	눅 1-2	고전 4-6	요일,삼,유
24	사 5-8	렘 51-52	나 1-3	눅 3-5	고전 7-9	계 1-3
25	사 9-12	애 1-5	합 1-3	눅 6-8	고전 10-13	개별통독
26	사 13-16	겔 1-3	습/학	눅 9-11	고전 14-16	계 4-6
27	사 17-20	겔 4-6	숙 1-3	눅 12-14	고후 1-3	계 7-9
28	사 21-24	겔 7-9	숙 4-6	눅 15-17	고후 4-6	계 10-12
29	사 25-29	겔 10-12	숙 7-10	눅 18-20	고후 7-9	계 13-15
30	사 30-33	겔 13-15	개별통독	눅 21-22	고후 10-13	계 16-18
31	사 34-37	겔 16-17		눅 23-24		계 19-22

[2020년 베이직교회 일정]

# 2020 BASIC SCHEDULE

1	2	3	4
<b>1</b> 신년예배 <b>12/26-18</b> 세이레기도회 <b>26</b> 1월뭇별예배	<b>23</b> 2월뭇별예배	<b>29</b> 3월뭇별예배	<b>6-11</b> 고난주간 기도회 <b>10</b> 성금요기도회 <b>12</b> 부활주일
5	6	7	8
<b>31</b> 5월뭇별예배	<b>27-28</b> 25공동체 수련회 <b>28</b> 6월뭇별예배	<b>26</b> 7월뭇별예배	<b>29-30</b> 36공동체 수련회 <b>30</b> 8월뭇별예배
9	10	11	12
<b>27</b> 9월뭇별예배	<b>24-25</b> 14공동체 수련회 <b>25</b> 10월뭇별예배	<b>15</b> 추수감사주일 <b>29</b> 11월뭇별예배	<b>21~1/15</b> 세이레기도회 <b>25</b> 성탄감사예배 <b>27</b> 12월뭇별예배 <b>31</b> 송구영신/ 신년예배

IV  
성찬  
|

## [성찬 안내]

성찬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것에서 유래합니다.

마 26:26-30; 막 14:12-26; 눅 22:7-23; 요 13:21-30; 고전 11:23-25

###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96번째

#### “성찬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찬이란 성례의 하나로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예식입니다. 그것을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적이고 육욕적인 방식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그의 모든 혜택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양육과 성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다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생각하며 대속적인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인의 유월절’입니다. 고전 5:7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던 때가 유월절 식사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유월절Passover은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던 하나님의

재앙, 심판, 형벌이 넘어서 지나갔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 12장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이 넘어갔듯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유월절의 연장이며 성취입니다.

성찬은 ‘참여sharing/participation’입니다. 고전 10:16 참여란 ‘코이노니아(교제/나눔)’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성찬은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식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의 식탁 고전 10:21 으로서도 표현합니다.

성찬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실 때 감사 하셨습니다. 헬라어로 ‘감사한다’는 말은 ‘유카레스테오’ 눅 22:17 인데, 여기에서 유카리스트Eucharist(성찬)가 유래되었습니다.

성찬은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을 확인하고 또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죄로 인해 죽으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롬 6:1-13; 고전 11:26 따라서 성찬은 과거 행위의 선포이자, 현재 경험의 표현이며, 미래 사건의 예언입니다.



[Come to Table]

## THE TABLE IS A CELEBRATION OF VICTORY. 계 12:10-11

성찬은 십자가를 통해 악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식탁을 통해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서로 축하하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 THE TABLE IS A PROCLAMATION OF REDEMPTION. 고전 11:26

성찬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새 생명을 주신 것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선포합니다.

## THE TABLE IS A DECLARATION OF DEPENDENCE. 요 6:53

성찬은 예수님의 삶에 참여함을 의미하며, 그분의 삶에 참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 THE TABLE IS A PLACE FOR EXAMINATION OF SELF. 고전 11:28-32

성경은 '너희 자신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과 합하여 사는 삶이 어떠한지를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성찬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장소입니다.

## THE TABLE IS A PLACE FOR RECEPTION OF PROVISION. 고전 11:29-32

스스로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피와 십자가로 그의 식탁에 초청하셨습니다.

<Jack Hayford Ministries 참고>

[성찬 가이드]

1. 기도로 준비합니다.

2. 성찬에 필요한 빵과 포도주는 통독반원과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 어린이나 포도주를 드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포도주스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 포도주와 빵은 예수님 안에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는 의미에서 한 빵, 한 그릇에서 떼는 것이 좋습니다.

3. 성찬 선포로 성찬의 시작을 알립니다.

- 거룩한 성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주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주의 십자가 복음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4. 성찬에 앞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는 기도

5. 빵과 잔을 나눕니다.

- 포도주를 담은 그릇에 빵을 찌거나, 미리 준비한 잔과 빵을 나눕니다.
- 나누시기 전에 빵과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고전 11:23-26](#)

6. 성찬에 참여합니다.

7. 감사의 기도로 마칩니다.



## [성찬 FAQ]

“사랑 없는 전통은 분열을 일으키고  
사랑 없는 형식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 |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빵과 포도주를 먹는 행위가 성찬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드러나는 현상이요 형식일 뿐입니다. 한 포도주와 한 빵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겠다는 고백이며, 공동체 구성원을 사랑하며 품겠다는 결단의 예전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껍과리이듯, 사랑 없는 성찬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식사 자리가 되고 나를 만족시키는 형식적, 종교적 도구가 될 뿐입니다. 성찬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 | 성찬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까?

주의 만찬을 기념하여 성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전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일까요? 아니면 멤버십을 체크하기 위한 도구일까요? 성찬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식사에 함께 참여함으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확인하며 가족 공동체로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께서 베푸신 식탁, 만찬의 본질은 생명 나눔과 사랑입니다. 나와 내가 인식되는 시간이요, 내가 녹아지는 현장입니다.

### | 성찬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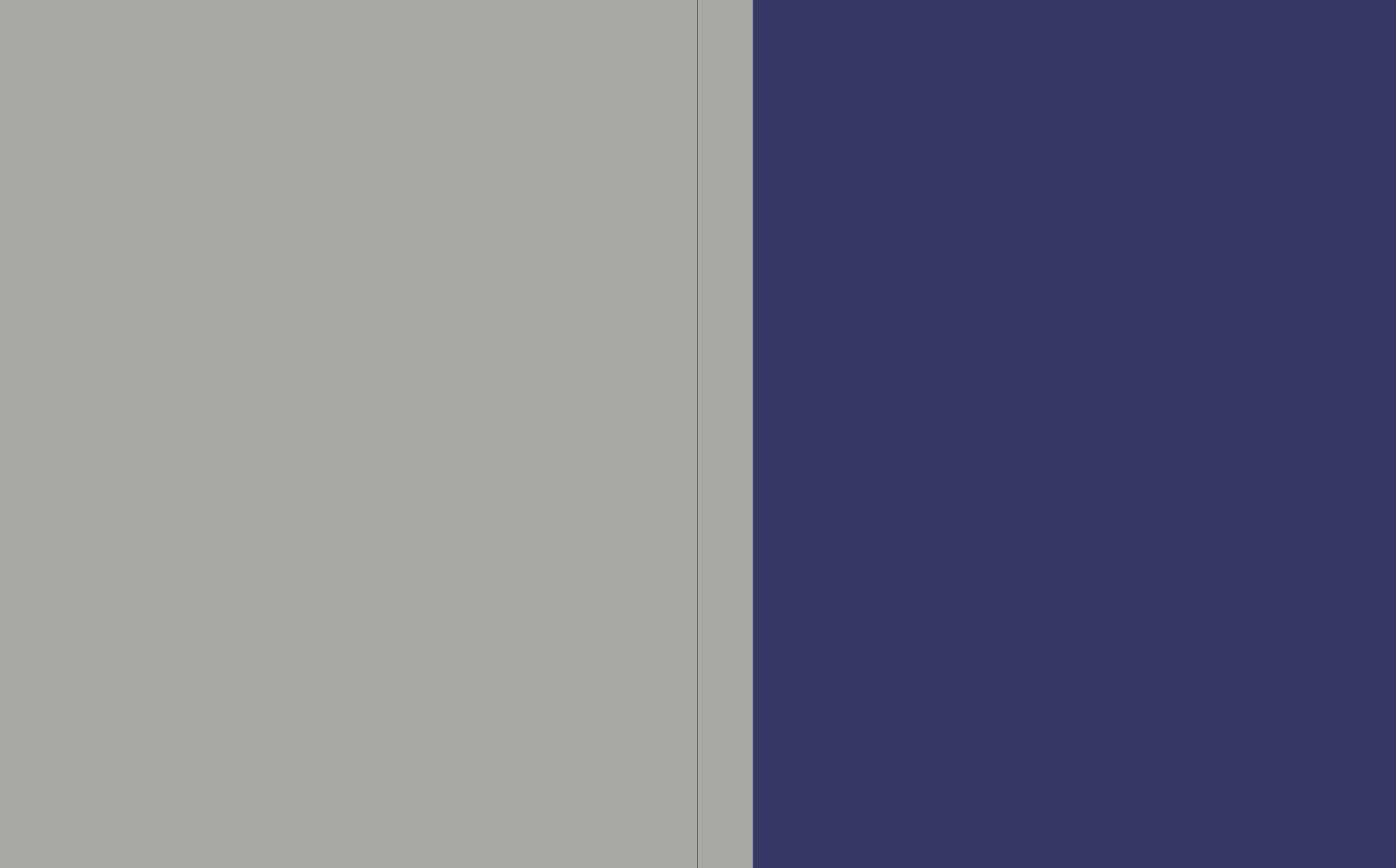
성찬은 예수님을 기억,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찬이 우리의 삶과 단절되어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 됩니다.

성찬은 과거의 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통해 출애굽을 상기시키셨고 거기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 약속은 과거 사건의 단순한 반복이기보다는 과거에서부터 시작되어 새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의 구원 사건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의 생명 나눔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찬의 본질입니다.

### [세례 신청]

- 세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세례 신청서는 교회에 늘 비치되어 있습니다.
- 세례 신청하신 분들에게 세례자 교육에 대해 안내됩니다.  
(개별 문자)
- 세례자 교육 참석하신 분들에게 세례를 베풁니다.





# BACK TO BASIC

BASIC COMMUNITY CHURCH

##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말씀과 성령으로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소명과 사명 따라 모이고 흠어지는 교회

### 정례예배

1부 09:00 ||| 2부 11:30

3부 14:30 ||| 4부(아름다운 동행) 17:00

### 아침예배

월~토 오전 06:30 K홀(지하2층)

### 주중모임

수요강좌 수 19:30 K홀(지하2층)

중보기도모임 수 10:30 K홀(지하2층) ||| 금 19:30 K홀(지하2층)

주중 모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4길 29(논현동 32-20)

02-518-1335 02-514-1335

\*유튜브 채널: 유튜브에서 베이직교회를 검색하십시오.

[www.basicchurch.or.kr](http://www.basicchurch.or.kr)

[basicchurchkr@gmail.com](mailto:basicchurchkr@gmail.com)